

## 0825(목) 에스겔 1-5장 내가 너를 칠 것이다!

에스겔은 2차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에 있었습니다.

그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.

(1:1, 2:4, 7, 3:14-15, 왕하24:8-16, 1차 605년/다니엘, 2차 여호야긴, 3차 시드기야).

그는 예루살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(1:3).

견습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던 중 포로로 압송되었고,

사역을 시작할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바벨론에 있었습니다(1:1).

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에스겔의 그리움은 남달랐을 것입니다.

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을 <선지자>로 부르셨습니다.

예레미야와 성전 지도자들의 날선 관계에서 보았듯(렘 20:1-2, 7/26장)

에스겔은 지금까지 받아온 훈련, 성전, 동료들을 뒤로하고

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해 심판을 선포해야 합니다(2:10, 4-5장).

더구나 2차 포로들은 귀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.

아직 예루살렘에 건재했던 때라 상황이 호전될 것을 믿었습니다.

그런 동료들에게 <당분간 집에 돌아갈 일은 없다> 말해야 합니다(3:11).

지금까지 준비하며 쌓아온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,

포로들과의 관계 등을 생각할 때,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.

가장 충격적인 것은 유다를 멸망시킬 적의 정체였습니다.

유다를 공격할 대적자는 다름 아닌 <하나님>이셨습니다(4:2-3, 5:8).

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고 별을 내리실 것입니다(5:8-9, 6:3).

그들은 불충과 악행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파기했습니다.

하나님께 언약을 이행하시라 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.

(2:3-5, 5:6, 11).

하나님은 에스겔을 <파수꾼>으로 세워 경계하게 하십니다.

그가 경고할 적은 바로 <하나님>이십니다(3:17, 4:2-3, 16, 5장).

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.

❶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습니까?

❷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?